

“비엔날레에 와 본적 있는데, 내 작품이 전시된다니 기분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지 궁금해요.”

“강아지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맘대로 뛰어다니라고 그렸어요.”

# ‘만장’에 풀어낸 시민들의 꿈·희망

광주비엔날레 ‘만장 워크숍’ 미산초 학생 등 참여 ‘복직’

박성완·하루.K 작가 등 진행 9월 7일 전시장 입구에 전시 폐막 때까지 관객 참여 가능



지난 24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만장 워크숍’에 참여한 미산초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만장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 2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은 초등학생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이날 아이들은 모두 어엿한 ‘작가’가 됐다. 4-5명씩 팀을 이뤄 의견을 나누고 ‘놀이처럼’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글을 썼다. 비엔날레가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한 ‘2018 만장 워크숍’ 현장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주 미산초 4-6학년생들이 참여했고 개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오전에는 광주예술고 학생들이 함께했다.

우리 민속 문화 중 하나인 ‘만장’에는 보통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글이 적힌다. 이후 만장은 사회적 요구와 염원을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돼 왔고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당시 ‘통일 미술제’에서 선보인 수많은 만장은 지역 작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는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만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기 위해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기획은 문화기획자 김선영(오버랩 대표)씨가 맡았으며 양초롱(이론가), 김현준(조각), 황중환(만화), 하루.K(한국화), 박성완(서양화) 작가가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다. 네명의 작가는 ‘만장’을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도 각

각 전시할 예정이다. 박성완 작가는 ‘만장’의 상징 중 하나인 대나무를 소재로 작품을 전시하며 황중환 작가는 벽화작업을 진행중이다.

24-25일 이틀간 워크숍 참가자들은 3m x 0.55m 크기 100여 개의 천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귀와 그림을 제작했다. 이날 참가한 아이들이 만장에 쓴 글귀와 그림은 다채롭다. 요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가수 등 자신들의 꿈을 적는 아이들도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건 힘들어’라는 글귀를 쓴 팀도 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의 풍경을 그리고, 졸업을 앞둔 6학년 팀은 ‘졸

업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적었다. 또 치킨을 먹고 싶은 마음을 적은 만장은 유쾌했고 푸른 색을 좋아한다는 팀은 다양한 색감의 푸른 물감으로 만장을 장식했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 하루.K 작가는 “특별히 작가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만장이 갖고 있는 아픔, 상처 등의 의미를 넘어서 꿈과 희망 등 자신들의 눈으로 풀어낸 세계를 만장에 표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장 워크숍 결과물은 광주비엔날레 전

시장 앞 광장에 들어서는 가로 15m x 세로 15m 규모의 구조물에 9월 7일부터 설치돼 김현준 작가의 작품과 함께 관람객들을 만난다.

특히 이 구조물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하는 관람객들과 함께 ‘완성작’을 만들어가는 게 특징이다. 행사 기간 중 작품을 보러 온 관람객들은 전시관 5관 출구에서 진행되는 만장 프로그램에 참여, 리본을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그 리본을 구조물에 매다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의 만장’에 참여하게 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 미술관이야 숲속이야

광주 산수미술관 31일까지 김자이 ‘휴식의 기술’ 전

깜깜한 전시장에 앉아 있으면 꼭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사방 벽면으로는 푸른 숲의 풍경이 보이고, 새소리도 들려온다. 미술관 전체가 숲으로 변모한 느낌이다. 천정에 매달아 놓은 건 나무줄기를 형상화한 것인데, 부드러운 촉감의 털실로 작가가 직접 뜨개질했다. 전시장에 놓인 캠핑 의자에 앉아 앉았이 부드러운 즐거움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김자이 작가의 ‘휴식의 기술’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산수미술관에서 열린다. 산수미술관이 진행하는 ‘생태학, 세 번의 반추 릴레이 전시’ 첫번째 기획이다.

영국 유학 시절 갑자기 발병한 갑상선암으로 고생했던 김 작가는 그제서야 한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휴식’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작가는 자연의 소리와 직접 촬영한 숲 영상, 나무줄기처럼 늘어뜨린 오보체, 숲의 냄새를 연상시키는 아로마 향기,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클래식 음

약까지 아울러 ‘실내 숲’을 만들어냈다. 전시장에는 작가가 던진 ‘나만의 휴식법’에 대한 관람객들의 대답도 적혀 있다. 관람객들은 깨끗하게 씻고 앉아 책을 보거나 TV 보기, 혼자 운전하며 노래 듣기, 관찰하기, 누워서 땀갈기 등을 휴식의 방법이라 소개했다. 전시장에서는 작품에 사용된 나무줄기를 뜨개질하는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날 수 있으며 수면양말을 만드는 털실로 직접 뜨개질도 해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조선대 문화미디어과, 홍익대 대학원 문화학과, 영국 Kingston University, Ma Art&Space를 졸업했으며 2015-2016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레지던스, 2017년 부산문화재단 홍터아트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광주시립미술관 2018 국제교류 참가자로 선정돼 가을에는 독일 뮌헨시 문화부 국제레지던시에 참가한다.

문의 062-234-97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내일 ‘어른도감’·29일 ‘소성리’ 감독과의 대화

광주극장 행사 다채...30일 ‘살아남은 아이’ 등 개봉

광주극장에서 다양한 개봉작과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오는 28일 ‘어른도감’ 김인선(사진) 감독과의 대화와 영화 상영 뒤 진행된다. 이 영화는 19회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고 넷팩상을 수상했다. 가족의 탄생은 새로운 시선으로 주목한 이 영화에서는 ‘밀정’, ‘백시운전사’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임태구가 절없는 삼촌 재민을 연기하고 이재진이 철든 조카 경연 역을 맡아 임태구와 연기 호흡을 맞춘다.

29일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소성리’를 연출한 박배일 감독과의 대화가 영화 상영 뒤 열린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강행되면서 전성터로 변해버린 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모습을 담았다.

또 6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살아남은 아이’는 30일 개봉한다. 영화는 아들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같은 날 10대 생존기를 그린 ‘박화영’과 ‘대관람차’도 개봉한다. 한일 양국의 음악 감성을 담은 ‘대관람차’는 일본 오사카의 풍경을 담은 이 영화는 ‘더 지두’ 출신의 배우 강두가 첫 주연을 맡아 일본어 대사를 완벽히 소화하며 극을 이끌어 간다. 문의 062-224-585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다종이 인형으로 보는 추억

광주·전남 한지공예연구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서

2001년 결성 후 한지공예의 단아한 멋과 전통을 지키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 한지공예연구회 회원들의 아홉 번째 작품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광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다. ‘2018 다종이 인형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년마다 개최하는 정기전으로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한경희(광주시

공예명장 2호) 작가를 비롯해 모두 9명의 작가들이 다종이인형 작품 30여점을 전시한다.

한지 특유의 전통과 현대미를 조화롭게 연출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한 날의 기억, 세월의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 따뜻하고 정다운 얼굴 등 참여 작가들의 소소한 삶의 기

억과 추억을 다종이 인형으로 표현했다.

한경희 작가의 ‘시인의 벤치’는 무등산을 바라보며 커피한잔을 즐겼던 김현승 시인을 재현했고, 김명숙 작가의 ‘행이요’는 뽕튀기 소리와 구수한 튀김냄새 가득했던 시골 장터의 추억을 아련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밖에도 송경래·박인숙·박경희·홍미순·이은희·윤성자 작가가 ‘모여라 품동산’, ‘시집가는 날’, ‘피아노 5중주’, ‘신사 임당’, ‘청사초롱’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2-410-663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경희 작 ‘시인의 벤치’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